

“마당·별·이웃…특별한 한달살이 좋아요”

영암군 ‘영암에서 살아볼래’ 추진
무안서 온 안창준씨 가족 등 5세대
군서면 ‘영암살래’ 귀농·귀촌 체험
“정착 사전 단계…이달 2기도 모집”

“마당 있는 집, 별빛 가득한 밤하늘에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정들었어요.”

광주·나주·무안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암
을 찾은 다섯 가족이 ‘한 달 영암살이’를 이어가
고 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군서면
모정마을에 조성된 ‘영암살래’에서 이들의 새
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영암살래는 군이 추진 중인 ‘영암에서 살아볼
래’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5세대 규모의 단독주
택이다.

해당 사업은 도시민이 한 달간 머물며 귀농·
귀촌을 체험하고 정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으로, 10월2
일 개장식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이 군서면 모정마을에 ‘영암살래’를 조성하고 올해 귀농·귀촌 등을 위한 한 달 살이 체험 프로그램 ‘영암에서 살
아볼래’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20일부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온 다섯 가족의 기념촬영 모습.

〈영암군 제공〉

그중 무안에서 온 조선업 연구원 안창준(43)
씨 가족은 도시의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고 영암
으로 향했다.

안씨는 “10년 동안 무안 집과 영암 직장을 오

가다 보니 영암을 더 잘 알고 싶었다”며 “가족
에게 영암살이를 제안했더니 모두 흔쾌히 동의
해 이곳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출산 풍경도 멋있지만 밤하늘에 별

이 가득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가끔 도
시의 편리함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가족 모두
영암살이에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정착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입주 가족들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
는 이웃 간 온정과 농촌의 여유로움이 좋다”며
“영암살래를 통해 귀촌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
암국제자동차경주장 마라톤과 무화과축제 등
지역 축제를 가장 인상 깊은 경험으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오는 18일까지 한옥문화 비엔날
레, 목재누리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와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해 ‘살아보는 영암’의 진면목
을 체험할 예정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살래는
단순 체험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착
사전 단계 프로그램”이라며 “입주자들이 지역
민과 교류하며 영암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1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
로그램을 보완해 이달 말 ‘영암에서 살아볼래’ 2
기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김인숙 광주상록라이온스 전 회장 ‘어르신 무료촬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1지구는 5일 “전남
광주상록라이온스클럽의 김인숙(이미지스튜
디오 대표) 20대 회장이 남구 사직동 소재 사회
복지법인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식당
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빛나는 오늘
의 정춘사진·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기념하고 아
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마련됐으
며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시지회 회원인 김 전

회장의 재능기부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김 전 회장이 사진 촬영을 맡아 어르
신 한 분 한 분의 미소를 담았으며, 박주현 송정
라이온스클럽 회장과 박연미 광주여성라이온
스클럽 회원은 머리 손질과 화장, 한복 의상 등
을 도우며 뜻있는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김인숙 전 회장은 “사진 한 장이 어르신들께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
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전남도, 전북 활용 제품 학교급식 시식행사

전남도는 5일 “지역 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어가 소득 안정과 미래세대 수산물 소비층 확보
에 기여하기 위해 도 내·외 20개 초·중·고, 1만5
천명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전북 활용제품 학교
급식 시식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시식행사는 산지 가격 하락과 소비
문화 등으로 어려운 전북 양식어가의 경영 위기
해소와 고정적 소비량 증가를 위한 미래 세대
소비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북

활용 제품 3종(전북해조염양밥·전북꼬치어묵·
슬라이스 전복)을 선정해 학교급식으로 제공하
며 전북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북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전달
할 방침이다.

순영곤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북산업을 지
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학교급식 제
공뿐만 아니라, 수입산 전복 제품의 국산화 지
원 등을 통해 소비 촉진과 수요를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국립목포검역소 ‘감염병 대응 현장훈련’

국립목포검역소는 지난 3일 감염병 발생 상
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
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제1급 감염병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을 가정해 검역단계에서 유증
상자가 확인될 경우 초동 대응 체계가 즉각적으
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목포해양경찰서(3015함) ▲전남도 ▲목포시보
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 간 유기적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대응 절차를 확인했다.

참여 기관들은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신속하고 체
계적인 초동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영순 국립목포검역소장은 “앞으로도 ‘넥스
트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의
해외 유입 차단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서구, ‘나눔리더100’ 가입식…1호 3명에 인증패

광주 서구는 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나눔리
더100’ 가입식을 열고 1호 나눔리더 3명에게 인
증패를 전달했다.

‘나눔리더100’은 서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 단체 기업을 ‘나눔리더’로
인증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
다.

나눔리더 1호로 인증된 이들은 ▲어머니의
뜻을 기려 아파트 보증금 일부인 1천만원을 쾌
척한故 김신자씨의 자녀들 ▲해경 교육훈련 기
간 동안 모은 100만원을 기부한 해양경찰관 문
호준씨 ▲서창역어새축제 수익금 일부를 후원한
‘서창해운’이다.

기부금은 조순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 협력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나눔리더100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따뜻하게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민관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
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
겠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제7기 나눔히어로 인증패’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지난 4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제7기
우리동네 나눔히어로 인증패 전달식’을 갖고
총 13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우리 동네 나눔히어로로는 광주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연
말까지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는 개
인·법인에는 ‘나눔히어로 인증패’가 수여된다.

광주 5개 자치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캠페인
은 동구의 경우 이번 7기 13명을 포함해 총 73명



이 모집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동구에만 모금된 성금은 총
8천7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연상 기자

영광미래교육재단 초대 원장에 김명신씨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초대
원장에 김명신(사진)씨가 선
임됐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
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 교
육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달 사무를 개시했다.

김 초대 원장은 연산면 출신으로 1984년 무안
군청 공무원으로 입직해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환경녹지과장 등을 거쳐 장성 부군수,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과장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김명신 원장은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은 ‘함께
키우는 교육, 지속 가능한 영광’이라는 비전 아
래 아이들이 영광에서 배우고 자라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노열 전남대 교수 대한지질학회 회장 선출

노열(사진) 전남대학교 지
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제43대
대한지질학회 회장으로 선
출됐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한
지질학회는 지난달 24·2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회를 통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30일 열린 제80차 정
기총회에서 노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확정했다.

노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다.

노 회장은 그동안 대한지질학회에서 지질학
회지 편집위원장, 부회장, 국제협력이사, 감사
등을 맡아 학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또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및 부회장, 이사
로 활동하며 국내 지질과학의 연구개발과 제도
적 기반 확립에 기여했다.

/박선옥 기자



김갑용 광주대 부총장, 발전기금 2억 기탁

광주대학교는 5일 “전남 김갑용 부총장이 학
교법인 호심학원과 광주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2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청춘을 바쳐 광주대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의 큰 자부심이자 감사한 인연이었
다”며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
학,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라
며 기탁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숙남 이사장은 “호심학원과 광주대학교의
무궁한 성장과 인재 양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동 큰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참교육
자로서 후학들에게 보내는 고귀한 뜻을 잊지 않
고 대학의 변화와 성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
다.

/박선옥 기자

결혼

▲박세중(한국학호남진흥원 사무국장)·김현숙
씨 장남 범석(타임게이트군, 이동훈(기아자동차)
·정혜선씨 장녀 나라(광주시교육청양·8일
(토) 오후 4시 더시그니스웨딩 3층(광주 서구
죽봉대로 50 교원공제회관).

▲양봉주·강해정씨 아들 재준군, 김현성(광주
시장에인체육회 사무처장)·김연숙씨 딸 나리양
=8일(토) 오전 10시30분 웨딩그룹 위너스 5층
엘리홀(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
산 참약사다온약국)·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
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
(광주 광산구 임광로대로 519).

부음

▲박애순씨 별세. 김덕현(호남일보 회장)·덕문·
덕성·민주씨 모친상, 이은주·김홍희씨 시모상
=발인 6일(목) 오전 9시30분 광주 서구 국민장
례문화원 301호(062-606-4000).